

# 광주·전남 휘발유값 10주 연속 상승

ℓ당 1560원 넘어  
상승률 전국 평균 웃돌아  
중동 리스크 영향 더 오를 듯

1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광주·전남 휘발유 가격이 12월 ℓ당 1560원을 넘겼다.  
지역 주유업계에서는 이달 셋째주까지 오름세가 이어져 평균 가격이 1570원을 넘길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ℓ당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광주 1560.52원·전남 1559.62원으로 집계됐다.  
광주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 1559.71원보다 0.81원 오르면서 ℓ당 1560원을 넘겼다. 전남도 전남(1559.43) 보다

0.15원 올라 조만간 1560원 고지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휘발유 가격은 10주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11월 둘째 주 ℓ당 1514.12원이었던 광주 휘발유 가격은 매주 오름세를 보이며 12월 첫째 주 1522.50원, 같은 달 셋째 주 1533.55원 등 1520원, 1530원 대를 빠른 속도로 돌파했다. 10주 동안 광주 휘발유 가격은 쉬지 않고 올라 3%(46.4원) 상승률을 보였다.  
전남 휘발유 가격도 지난해 11월 둘째 주 1524.28원에서 11월 3주 1524.97원→11월 4주 1526.12원→12월 1주 1527.47원→12월 2주 1530.91원→12월 3주 1536.01원→12월 4주 1541.03원 등 10주새 2.3%(35.34원) 상승했다.  
광주·전남 상승률은 전국 평균(2.3%)과 서울지역(1.8%) 상승률을 웃



의 갈등 고조,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12월 원유 생산 감소 추정 등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했다"며 국내 기름값이 더 오를 것을 시사했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에 반영된다.  
한진현(60) 주유소협회 광주지회장은 "미국과 이란 간 무력충돌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이 시장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다음주까지는 ℓ당 10원 정도 휘발유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중동위기 대책반'을 추가 개설하고 석유수급 상황실과 연계해 유가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비상시 전국 9개 비축기지가 비축유를 즉시 방출할 수 있도록 가격 안정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저축은행 가계대출 원리금 휴일에도 온라인 상환 가능

올해 상반기부터 모든 저축은행 가계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휴일에도 온라인으로 갚을 수 있게 된다. 또 여러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을 비대면으로 한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제도가 올해 상반기 안에 이룬 방향으로 개선된다.  
앞으로는 쉬는 기간에 생기는 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저축은행에서 쉬는 날에도 모바일 뱅킹 등 온라인으로 가계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또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만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계좌(수시 입출금은 불가)를 도입한다.  
지난해 10월 기준 광주·전남지역 상호저축은행 대출 잔액은 960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750억원) 보다 9.7% 늘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삼성전자 개발기획 담당자들이 2020년형 QLED 8K가 수상한 CES 혁신상과 현장 어워드 상패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 삼성전자 기업가치 세계 18위

1년새 10계단 올라  
시가총액 340조원

삼성전자의 기업가치가 경중 뛰어올랐다. 반도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다.  
12일 한국거래소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9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기업 시가총액 순위(상장지수펀드 제외) 18위로 올라섰다. 이는 지난해 초 28위에서 10계단이나 수직 상승한 것이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1월2일 2065억7000만달러(231조3291억원)에서 지난 9일 3016억5000만달러(349조 8293억원)로 950억8000만달러(118조 5002억원) 늘었다. 이 기간 삼성전자 주가는 3만8750원에서 5만8600원으로 51%나 뛰어올랐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지난 9일 수정주가 기준으로 지난 1975년 6월 11일 상장 이후 약 45년 만의 최고 주가를 기록했다. 이후 10일에는 전 거래일보다 1.54% 오른 5만9500원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가를 단 하루 만에 경신했다.  
증권가에서 제시한 삼성전자 목표주가 평균치는 10일 현재 6만7931원으로 현재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이 15.73%에 달했다. 그러나 글로벌 시총 100위 기업 중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뿐이었다. 국내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는 100위 안에 들지 못했다.  
이번 조사에서 글로벌 기업 시가총액 순위 1위는 지난해 말 상장한 사우디아라

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였다. 아람코의 시가총액은 약 1조8200억달러(약 2113조9300억원)에 달했다. 2위는 애플, 3위는 마이크로소프트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7~10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전시회인 'CES 2020'에서 CES 혁신상과 최고 제품상 등을 휩쓸었다. 'CES 혁신상' 46개를 포함해 현장 어워드 198개를 받았다. 9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한 TV 부문에서는 QLED 8K,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더 월(The Wall), 라이프스타일 TV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기아차 노조 오늘부터 부분파업

임금 추가 인상 요구  
기아차 노조가 새해들어 다시 파업의 깃발을 들었다. 지난해말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뒤 추가 교섭을 하고 있지만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12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지난 10일 쟁의대책위원회 7차 회의를 열어 13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18일과 19일, 24일 부분파업을 벌인 데 이어 네번째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9일 제시된 사측안은 현장의 여론을 무시하고 조합원을 기만하는 내용"이라며 "조합원의 인내를 시

협하려 하지 말고 실질적인 내용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2019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자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추가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당시 부결된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 기본급 4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 성과급 및 격려금 150%+300만원 지급 ▲ 전통신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 라인수당 인상(S급 5만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 9월 타결된 현대차 임단협안과 비슷하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무분류로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선거자금 통장 만들면 각종 수수료 무료"

총선 마케팅 막 올라  
광주은행 '당선기원통장' 판매  
"선거자금 통장 만들면 각종 금융수수료 무료."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이색 금융상품을 내세운 '총선 마케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12일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13일부터 4월14일까지 총선 입후보자의 원활한 선거자금 관리를 위한 '당선기원통장'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내세워 선거자금 수요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면제대상 수수료는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증명서 발급수수료,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광주은행 자동화기기(CD·

ATM)이용수수료, 창구 송금수수료, 제사고 신고 수수료 등이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입후보자는 반드시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관리를 위한 예금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 이 계좌를 통해서만 선거 관련 수입과 지출이 가능하다. 광주은행 당선기원통장의 가입대상은 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이다.  
광주·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 비용 제한액은 광주가 평균 1억 7000만원·전남이 2억2700만원으로, 전남 제한액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12일 기준 광주 39명·전남 46명이 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8년 6월 치러진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당선기원통장 100여좌를 판매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건설사 파산해도 근로자 임금 보장된다

국토부 임금직접지급제 도입 추진  
건설사가 부도나거나 파산해도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금 지급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부터 공공공사에 임금직접지급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좀더 개선한 형태다.  
임금직접지급제는 전자적 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공사대금을 받아도 근로자 임금 등은 손대지 못하게 막는 시스템이다.  
공단은 이에 더해 올해 상반기까지는

발주청이 원도급사에 공사대금을 주면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근로자 임금을 직접 주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더해 내년부터는 발주청이 원·하도급사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가 파산해 계좌가 묶이더라도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새로운 임금지급 시스템을 철도공단 외 다른 공공 사업자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임금직접지급제가 민간공사로 확산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평가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1893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 15 17 23 25 41	10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377,433,625	9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61,485,353	58
3 5개 숫자일치	1,687,720	2,113
4 4개 숫자일치	50,000	116,062
5 3개 숫자일치	5,000	1,899,696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